

# 책과 TV, 상호 보완적 관계

## 책의 역할과 중요성 인식 계기돼야

글\_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비평회 부회장

TV와 책의 만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책을 소개하고 독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TV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고 인기 TV프로그램을 토대로 책을 출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MBC TV 드라마 <주몽>은 서점가도 함께 달구고 있다. 10여 종 이상의 책들이 출간되어 팔리고 있는데 《정설 주몽》《소설 주몽》《고구려를 세운 주몽》을 비롯하여, 《주몽의 연인, 소서노》《여제 소서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TV가 책으로 다시 태어나다

내용은 비슷한데 4년 전 발간한 책의 이름만 주몽으로 바뀌달아 다시 펴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들 책들은 대부분 TV 드라마의 인기를 등에 업고 출판가에 등장했거나 시청률에 의해 판매고가 결정되는 드라마 의존적 책들이다. TV 드라마 기획 단계에서부터 책 출판을 동시에 추진한 경우는 《주몽》(황금나침반)뿐이다.

그런데 TV 프로그램을 책으로 발간하는 장르는 드라마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육방송의 교재로 책을 출판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교양에서 오락까지 모든 장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KBS 다큐멘터리 <마음>을 글로 엮은 책 《마음》은 지난 5월 둘째 주 교보문고 교양과학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였고, EBS 자연다큐멘터리를 재구성한 생태동화 《하늘다람쥐의 숲》과 어린이 프로그램 《만들어볼까요?》도 어린이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KBS 2TV 《위기탈출 넘버원》도 책으로 출판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최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오락 프로그램들 중에 <상상플러스-



올드앤뉴>는 7월 중에, 교육방송 <지식채널e>는 가을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그 외에 출판된 지 1~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10만 부 가까이 팔리고 있는 인기도서들도 있는데 《비타민》《스핀지》《생로병사의 비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인기 TV 프로그램의 책 출간 현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출판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독서 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프로그램의 인기에만 편승해서 책을 급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건전한 출판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역기능도 초래할 것이다.

### TV가 책을 소개하다

몇 해 전부터 TV를 통한 책 소개 또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바쁘다는 핑계와 함께 제대로 책 한권을 읽은 기억이 희미한 우리들에게 KBS-1TV의 <TV 책을 말하다>와 같은 독서 관련 프로그램은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고 되물으며 번쩍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그렇게 바빠 뛰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되문게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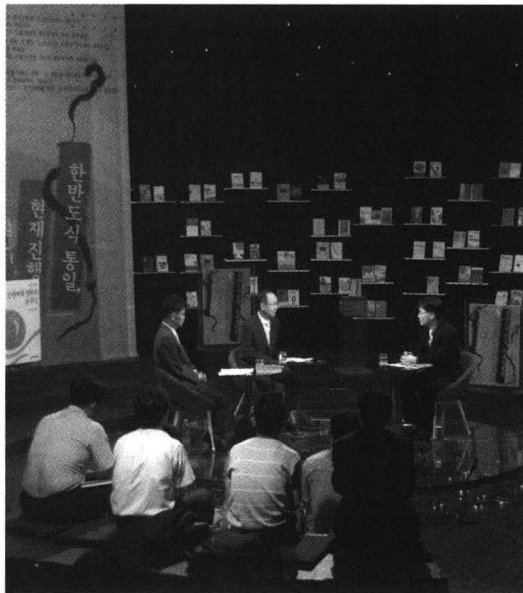
생각보다는 행동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영상 시대에 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책을 읽는 사람은 적다. 그만큼 언제부터인가 책은 현대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

TV 독서 프로그램은 이렇듯 책과 낯설어진 현대인들 가까이 책을 끌어다 주는 역할을 한다.

차분히 책을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 자체가 현명한 생활을 위한 기본이라는 점에서 보면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필수적인 삶의 지혜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인은 TV를 비롯한 갖가지 영상매체들로 둘러싸인 채 현란한 영상의 숲 속에서 갈수록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 취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매체 편식 경향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서는 더욱 강조되고 권장되어야 할 국민적 실천 과제인 셈이다.

아울러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들은 요즈음 무슨 책을 읽을까를 궁금해 한다. 특별한 독서광이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고를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을 찾게 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은 그만큼 책의 내용이 검증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TV 독서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런 독자,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거나 현재 읽고 있거나 또는 대중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사회변화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코드를 담고 있는 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TV와 책의 만남, 그 의미와 필요성

매체의 속성으로만 보면 TV와 책은 애초부터 결합이 어려운 관계이다. 매체발달사로 보아도 책의 시대에서 TV의 시대로 옮겨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신구 매체 간 서로 보완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으나 사실은 대부분 주

목하지 않았다. 활자매체인 책의 시대는 가고 전파매체인 TV시대가 도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TV를 비롯한 영상매체가 책을 비롯한 인쇄매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시각인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고도화한 신기술 매체가 출현한다고 해도 활자매체인 책의 기능과 역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영상을 통한 메시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활자를 통해 전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의미의 영향력과 수시로 변하는 대중의 취향만으로 매체의 기능과 역할 자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 책의 기능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사회는 지금 지나치게 영상매체에 열중하고 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책과 TV는 지속적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채워주어야 할 보완적 관계인데도 말이다. 이런 영상시대 균형 잡힌 매체 접촉을 위해서도 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양 매체 간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일이다. 좋은 TV프로그램을 책으로 출간하여 영상 메시지가 활자 메시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일도 이런 양 매체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천 방안이 될 것이다. **■**